

전남

완도군 도시민 161세대 유치

지난해부터...귀농·귀어 인구 늘리기 정책·마케팅 성과

완도군이 도시민유치 성과를 특...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유치한 도시...

읍·면별로는 전북산림의 활성화로...

완도군이 이토록 획기적인 성과를...

또 빈집 및 토지현황을 조사 DB화...

특히 2회에 걸친 농·어촌체험 투...

지난 2009년 완도군으로 귀농해...



완도군으로 귀농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있다. <완도군 제공>

선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처...

완도군은 이달 들어서도 이장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약산지구 전...

여수시가 지난해말 조성한 탐방...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李大통령 추천 명품 여름휴가지 여수 금오도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여름 휴가지로 추천한 국내 7곳에 포함된 여수 금오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 금오도(27km²)는 면적의 27%인 7.3km² 정도를 개발해 여수에서 배길로 20분 정도 달리면 섬의 들머리 첫 마을인 함구미 마을 선착장에 도착한다.

이 섬이 대통령이 추천할 정도로 유명해진 것은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떠 있는 섬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된 8.5km의 '비렁길'(벼랑길의 지역 사투리)이 명품 탐방로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여수시가 지난해말 조성한 탐방로는 함구미 선착장~응두~절터~신선대~두포~굴등전망대~직포까지로 4시간 정도 걸린다.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10여원을 더 들여 직포에서 장지까지 10km의 비렁길을 추가·조성해 총 18.5km로 연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임란 최후 전적지 순천 왜교성·장도 역사공원 만들어 역사자원 활용해야”

충무공 유적보존회·전남 동부사회협 ‘순천 포럼’

임진왜란 최후의 전적지인 순천 왜교성(倭橋城)과 장도(獐島·노루섬)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개발해 전남 동부권의 문화역사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무공 유적보존회와 (사)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26일 순천향교 명륜당에서 ‘지역사의 과제, 순천 왜교성대첩 역사공원 조성’을 주제로 한 ‘제 42차 순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왜교성 전투의 역사적 조명(임주일 순천 효천고 교사·동사연 한일담사회 대표) ▲장도보존 시민운동의 경과와 과제(이학영 전 동사연 소장·전국

YMCA사무총장) ▲순천 왜교성대첩 역사유적지 조성의 필요성(임동규 이충무공유적보존회 회장) 등 주제논문이 발표되고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임주일 동사연 한일담사회 대표는 “왜군이 쌓은 왜교성은 복원됐는데, 정작 왜군을 물리친 조·명 연합 수군의 주둔지는 파괴된 채 방치돼 안타깝다”며 “순천 왜교성과 장도 등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한·중·일 동양 삼국의 격전지였음을 재조명하고 이 일대를 사적 공원으로 전남 동부권의 문화역사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동규 보존회장은 “왜교성과 장도, 충무사는 이 충무공 최후의 흔이 서린 유적지”라며 “30여년 동안 온통 공단만 들어섰던 광양만에 역사 유적지를 보존해 숨을 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1995년 울릉공방 입주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석채취 목적으로 조·명 연합 수군의 전진기지였던 장도 일부를 폭파했다. 결국 0.4km의 규모가 파괴됐고, 70여가구 주민들마저 이주한 뒤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순천왜성은 지난 1963년 사적 제49호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다시 1999년 전남도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임진왜란 최후의 전적지인 장도(노루섬)의 현재 모습.



해수욕장 교통안전 캠페인 캠퍼링활동(서장 김지중)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합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음주운전 근절과 안전띠 착용 등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전남 초·중생 2016명 영어체험캠프

내년 7개 캠퍼서서 내달 16일까지 운영

전남도는 25일 농어촌 중학생 1008명과 원어민간사 98명을 포함한 245명의 운영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영어체험캠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전남 영어체험캠프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자녀의 참가 비율을 30% 늘렸다. 초등학교 6학년 1008명, 중학교 2학년 1008명으로 모두 2016명을 선발해 전남도립대, 전남과학대 등 7개 캠퍼스에서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운영된다.

특히 이번 캠프는 실생활 영어회화 적용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캠프 기간중 원어민간과 직접 호텔 등을 방문해 현장체험을 하고 미니 올림픽, 서바이벌 게임 등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흥미를 유발한 점이 특징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운영비 전액을 부담해 무료로 진행되고 수준별 학습을 위해 사전에 선발된 참가학생

은 입소와 퇴소시 각각 실력 진단 테스트를 받아 자신의 영어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외국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은 처음 본다”며 “실례고 긴장도 되지만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다졌다.

캠프 교재 개정부터 운영·관리까지 함께하는 국내 교사들도 “듣고 말하는 실용영어에 중점을 두고 교재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체험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편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도록 했다”며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대발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운영 교사의 열정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커지면 결국 전남도의 꿈과 희망이 커지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주민감사 청구...기रो에 선 목포 세라믹산단

전남도 내일 심의회 열어 요건 충족면 감사

주민감사가 청구된 목포 세라믹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심의가 오는 28일로 다가와 심의 결과가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주민 228명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28일 심의회를 열어 감사청구 요건에 충족될 경우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남도 심의 결과에 따라 민노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계획변경이 불가피해 자칫 산단조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민노당은 지방재정법 등 법을 위반한 편법적인 조성원가 산정,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꼽고 있다.

또 목포시가 당초 전남도에 의뢰한 투·융자심사와 달리 개발방식을 공영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을 위반하고,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진입도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게 민노당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목포시는 “기재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돼 사업이 담보상태에 있다”면서 “법률에 위반된 것 없이 추진된 예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연산동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의회를 방문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민노당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목포시는 세라믹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산동 11만6455㎡규모의 세라믹 산단 조성사업을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중주연행 신보정, 대인동 소망서관리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신월C 교통광장 접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화산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5동)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대 지: 250평(30×8코너)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전 : 9,500평
•합 계 : 13,500평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제,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Table with 4 columns: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광주역동 공장, 광주역동 공공, 광주역동 홈플러스, 광주역동 홈플러스, 광주역동 홈플러스, 광주역동 홈플러스

Table with 4 columns: 근린시설/원룸, 김규석이사 010-6654-6888, 숙박시설/상가, 정이사 010-5879-0005, 공장/토지,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아파트/빌라, 명태진팀장 010-2634-3752, 주택/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택, 김한승이사 010-8033-0114
병원,교회,사육,모델,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전문(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